

2022 March

Hana

Market Monthly

연구위원 서정훈  
Tel. 02-729-0195  
seojh@hanafn.com



## 목차

---

I. 금리	3
I. 달러/원 환율	5
III. 엔/원 환율	7
IV. 유로/원 환율	7

---

# 금리

## 2월 동향

### 글로벌 인플레이션 지속 상황에 따른 연준 긴축 가속화 우려가 국고채 금리 상승 요인으로 작용한 반면, 중반 이후 고조된 동유럽 위기 감 증폭이 안전자산 선호에 영향을 미치며 후반 하락 추세로 전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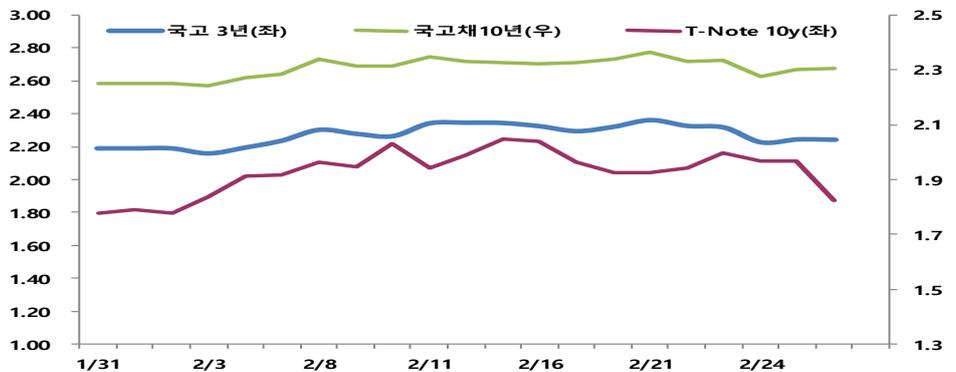
유럽 경제권의 긴축 움직임 속에 미 CPI 급등이 국내외 국채시장 약세 흐름 견인

우크라이나 긴장 고조 속에도 연준의 1월 의사록이 대체로 시장 예상에 부합한 측면이 반영되며 금리 상승세는 다소 제한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에 따른 안전자산 선호 강화에도 인플레이션 우려 재부각 속에 한은의 매파적 통화정책 시사 등이 하단 제한하며 등락

- 2월 초, 일부 연준 위원의 금리인상 속도조절 시사에도 유로존의 매파적 긴축 의지 등으로 상승 출발. 이어 미 1월 CPI 최근래 급등에 따른 연준 긴축 강화 우려 반영되며 급상승 지속
  - 1월 초, 설 연휴 이후 연준 일부 위원의 금리 인상 속도 조절론 시사 등으로 하락 출발 했으나, 이어 BOE와 ECB의 매파적 긴축 의지 표명에 글로벌 금리 상승에 동조화되며 국고채 금리도 상승 전환
  - 이어 미국의 1월 CPI가 1982년 이후 가장 높은 7.5%(YOY) 상승함에 따른 연준의 50bp이상 금리인상 우려가 높아지며 국내외 국채시장의 매도 압력 강화 등으로 국고채 금리 급상승 흐름 강화
- 중반, 우크라이나 긴장 고조감이 안전자산 선호 강화 요인이었으나, 미-러 정상회담 소식에 위험 회피가 일부 완화되며 상승. 반면 1월 연준 의사록이 시장 예상에 대체로 부합한 측면은 국채 매수심리를 자극한 요인으로 작용하며 상승세 제한
  - 중반, 우크라이나에서의 긴장 고조에 따라 안전자산 선호가 강화되는 분위기 보이다 미-러간 정상회담 소식 등으로 다소 위험회피 심리 완화되는 양상 속 국고채 금리 높은 수준에서 등락
  - 반면, 연준의 1월 의사록 발표 후, 결과가 대체로 시장 예상에 부합하는 면에서 금리 인상 속도가 빠르지 않은 긴축 가능성이 반영된 점은 국고채 금리 상단을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
- 후반, 러시아의 전격 침공에 따른 군사작전 개시로 안전자산 선호 강화되었으나, 금통위 금리 동결 속 물가 3.1% 상향에 국고채 시장 매도 압력 커진 점이 하단을 제한에 영향을 미침
  - 후반, 러시아 전격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라 우선적으로 안전자산 선호 강화 요인으로 작용하며 금리 하락에 영향을 미쳤으나, 이어 러시아 경제제재에 따른 공급 병목 가속화 이슈의 대두로 상승 전환
  - 이어 한은 금통위에서 최근 인플레이션 상황을 고려 물가 전망을 3.1%로 상향하며 연내 추가 인상 가능성을 시사함에 따른 매파 성향이 국채 시장에 반영 된 점이 전쟁 관련 안전자산 선호에 따른 하단 제한하는 형국 보이며 마감

### 주요 시장금리 추이



자료: 하나은행. 단위 %

## 3월 전망

한은의 물가 3.1% 전망 속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과 연준 완화적 긴축 예상에도 최근 전쟁 이슈에 따른 경기하강 압력 증대에 의한 안전자산 선호 강화 시점의 빈번함 예상에 소폭 하락 흐름 예상

평균	1Q22	2Q22	3Q22	4Q22
국고채(3y, %)	2.1 <sup>(F)</sup>	2.20 <sup>(F)</sup>	2.40 <sup>(F)</sup>	2.50 <sup>(F)</sup>

3월 FOMC의 완화적 긴축 전망이 예상되는 점은 강한 통화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을 해소하며 국내외 금리의 소폭 하락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1월 국내 경기의 부진과 대외 전쟁 이슈에도 금리 인상 기조를 유지하는 한은의 매파적 스탠스는 금리 상승 요인

3월 국고채(3Y) 금리는 2.15%~2.30% 예상

- 3월 FOMC에서 다소 완화된 25bp 금리인상 예상은 최근 인플레이션 지속에도 불구하고, 미 장기금리 상승 탄력을 완화시킬 전망이다. 이는 최근의 국고채 금리 상승 제한에 영향 미칠 전망이다.
  - 3월 초반, 파월 의장의 하일 연설에서의 동유럽 사태 등으로 경제 불확실성 우려가 확대됨에 따른 25bp 금리인상 지지 언급 등에 비춰 전격적 25bp 금리인상 단행이 예상
  - 이는 인플레이션에 대응하기 위해 50bp 인상을 예상한 일부의 시장 기대보다는 상대적으로 완화적 긴축으로 받아들여지며 통화정책 불확실성 해소 속 향후 점진적 인상 기대 높일 전망이다. 이에 인플레이션 상승 압력 이슈를 크게 반영했던 국내외 금리 상승 압력이 다소 완화 국면을 보일 것으로 예상
- 반면, 대내적 한은의 1월 금통위가 금리 동결에도 향후 국내 물가전망을 3.1%로 높이며 연내 추가 인상 가능성을 시사, 매파적 기조를 보인 측면은 국고채 금리 하단을 제한할 요인
  - 대외적 전쟁 이슈 속에 1월 국내 산업생산과 소매판매 지표가 부진한 측면 등으로 고려할 때, 국내 경기의 하방 압력이 다소 확대된 것으로 판단
  - 그럼에도 국제 원자재, 상품가격 상승 등을 반영 국내 물가의 연내 3.1% 도달 가능성을 예상한 한은 스탠스가 매파적인 가운데 추가 인상을 고려하고 있다는 점은 국고채금리 하단 제한할 것으로 예상
-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로 치달을 가능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원자재, 상품가격 상승 등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확대 요인은 금리상승 압력 요인. 반면, 세계 경제의 회복 불확실성을 높이는 측면에서는 안전자산 선호 요인으로, 상황에 따라 금리 상하방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 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 가능성에 따른 국제 원자재, 상품 가격 등의 상승은 공급측 인플레이션 확대에 영향을 미칠 요인으로 국내 물가 상승 추세 지속에 따른 한은의 매파 스탠스 강화를 통해 금리 상승 기대를 높일 전망이다
  - 반면, 세계 경기 회복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불확실성 확대 측면에서는 안전자산 선호 강화 요인으로도 작용할 수 있음. 이에 따라 우크라이나발 이슈는 양면적으로 금리 방향성에 영향 미칠 전망이다

### 상승 요인 vs. 하락 요인

상승요인	하락요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완화적 연준 통화정책에도 단계적 금리 인상 시사가 전망되는 상황</li> <li>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속 주요 원자재 가격 상승 등 인플레이션 확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연준 완화적 긴축에 따른 통화정책 불확실성 해소</li> <li>국내 1월 산업생산 등의 주요 지표 부진</li> <li>동유럽 전쟁 장기화에 대한 세계경제 회복 지연</li> </ul>

# 달러/원 환율

2월 동향

미 1월 CPI 급등 양상에 따른 강한 긴축 시그널의 초반 달러 강세 견인 속에 중반 이후 우크라이나 전쟁 이슈 부각에 따른 안전자산 선호 강화 요인 등으로 1,200원 상향

유럽 중앙은행들의 긴축 스탠스 시사 속 국내 주요 중공업 업체들에 의한 수급 개선 등으로 원화 강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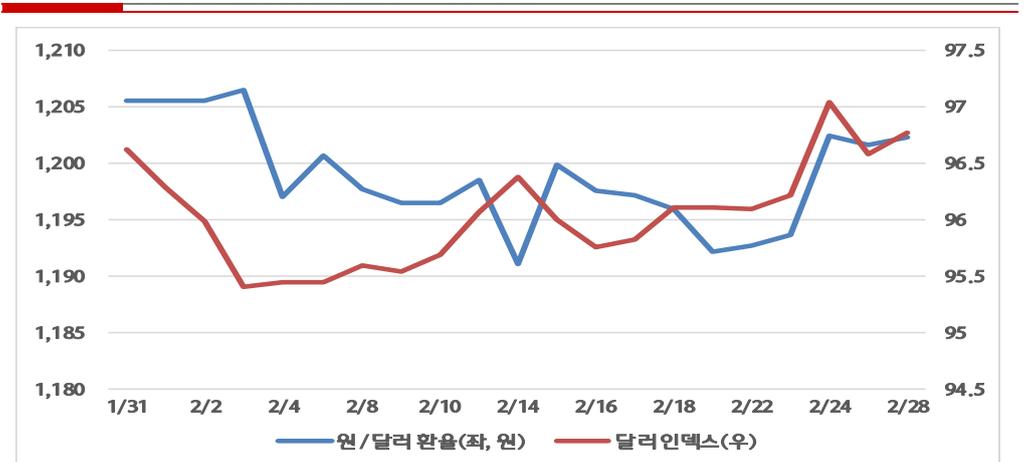
동유럽 지정학적 위기 고조 속에 연준 위원들의 매파 발언 등이 달러 강세에 영향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속에 인플레이 확대 우려 겹치며 환율 상승 압력이 높아지는 양상

- 월초, 설 연휴 이후, BOE와 ECB의 매파적 긴축 시그널에 의한 달러 약세 반영되며 강세 출발. 이어 미 1월 CPI를 앞두고 관망하는 분위기 속에 변동성이 다소 완화되며 소폭 강세 지속
  - 월초, 유럽 주요 중앙은행인 BOE와 ECB의 긴축 시그널 제시 등이 달러 약세에 영향을 미치며 원화 강세 출발
  - 이어, 1월 미 CPI 대기 속 다소 환율 변동성 완화를 보인 가운데 대규모 중공업 수주 소식 등에 의한 수급 개선 등으로 원화 강세 지속
- 월 중반, 우크라이나 지정학적 전쟁 위기 고조와 연준 위원들의 매파적 언급 등이 달러 강세 견인한 가운데 미-러간 회담 성사 가능성 등이 위험회피 완화에 영향을 주는 형국
  - 중반, 미 바이든 대통령의 러시아 침공 언급 등에 따라 지정학적 긴장이 최고조에 이르며 안전자산 선호 강화 등이 나타났으나, 이어 미-러간 회담 가능성으로 위험회피심리 다소 누그러지는 모습
  - 하지만 미 1월 CPI가 1982년 이후 가장 높게 나타나며 연준위원들의 매파적 스탠스 확대에 따라 환율 변동성은 재차 높아진 가운데 환율은 1,200원대에 근접 양상 나타냄
- 후반, 러시아의 전격 침공 개시에 따라 급격한 시장의 안전자산 선호 강화 속에 1,200원 상향 후, 전쟁의 장기전화 우려 속, 우-러 협상 소식에 대한 기대 등이 시장 안정에 다소 영향
  - 후반, 러시아의 전격적 침공 소식에 안전자산 선호가 급격히 높아진 가운데 주요 금융시장의 변동성도 확대되며 환율은 1,200원을 상향
  - 이어, 전쟁 발발에 따른 불확실성 해소와 우-러간 협상 소식 등이 위험회피 완화에 영향을 미쳤으나, 러시아 경제 제재에 따른 병목 확대에 의한 인플레이 확대 우려가 연준의 강한 긴축 가능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 등이 불거지며 1,200원대 초반 안착하는 모습 보이며 마감

3월 달러/원 평균환율 : 1,198.5  
3월말 달러/원 환율 : 1,202.3

달러/원 환율 및 달러인덱스 지수 추이



자료: 하나은행

## 3월 전망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에 따른 인플레이 확대와 경기 불확실성 증가에도 연준의 완화적 긴축에 의한 통화정책이 그간의 불확실성 해소에 받아들여지며 소폭 환율 하락 견인할 것으로 예상

평균	1Q22	2Q22	3Q22	4Q22
달러/원 환율(원)	1,195 <sup>(F)</sup>	1,175 <sup>(F)</sup>	1,170 <sup>(F)</sup>	1,190 <sup>(F)</sup>

우크라이나 전쟁이 협상 가능성 열려있는 가운데 장기전화하는 움직임은 시장 심리를 무겁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

-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에 따른 지정학적 리스크는 협상 가능성에도 장기전화하면서 주요 시점에서 통화시장 변동성을 높이는 요인이 될 전망
  - 우크라이나 지정학적 리스크는 전쟁 발발이라는 이벤트로 불확실성 해소가 일부 있던 것이나, 러시아 제재 등에 따른 강한 반발 시점에서의 위기 재고조 가능성 등이 변동성 확대 요인으로 예상
  - 또한, 주요 국가들의 러시아 경제제재에 따른 글로벌 인플레이션 지속 상황에서 세계 교역 감소 등의 영향이 국내 경기 회복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에 대한 대내 신인도 저하 등이 환율 하단 제한할 것으로 전망되나 연준의 강한 긴축 가능성을 완화할 수 있다는 측면은 원화 강세 요인으로 판단

전쟁 이슈 등으로 인플레이션 확대 우려가 커졌으나 연준이 3월 FOMC에서 25bp 인상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 통화정책 불확실성 해소에 영향을 미칠 전망

- 연준은 3월 FOMC에서 25bp 금리인상 결정할 것으로 예상. 전쟁에 따른 인플레이 우려 다소 상승했음에도 경제의 충격 가능성을 보다 크게 반영하며 다소 완화적 긴축 움직임 보일 전망
  - 연준은 지속적인 인플레이션 상승 지속에 따라 3월 FOMC에서 그간 기조를 유지한 금리인상을 단행할 전망
  - 다만, 최근 전쟁 이슈에 따른 경제 충격 가능성 반영하며 25bp의 완화적 긴축에 머물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시장은 금리인상에 대한 불확실성 해소에 반응하며 다소 달러 약세 흐름이 전개될 전망

3월 달러/원 환율  
1,185 ~ 1,200원 변동 예상

- 대내적 오미크론 확산에도 방역조치 완화를 검토하고 있으나, 1월 산업생산과 소매판매 등의 감소세에 따른 올해 성장 전망 하방 압력 강화에 의한 대외 신인도 약화 가능성 등이 연준 불확실성 해소 요인 등에 따른 원화 강세 움직임을 제한할 것으로 예상
  - 국내 1월 산업생산, 소매판매 지표가 전월비 각각 0.3%, 1.9% 감소하며 무역수지가 흑자 전환하였음에도 오미크론 확산세와 함께 경기의 불확실성을 높인 상황이 외국인 투자자의 국내 신인도 저하에 영향을 미치며 3월 연준의 금리정책 불확실성 제거 가능성에 따른 원화 강세를 다소 제한할 전망
  - 하지만, 1월 금통위에서 한은이 여전히 올해 예상 성장 경로 유지한 가운데 물가 지표 상향하며 추가 금리인상 시사한 점이 원화 약세 제한할 가운데 대내적 요인은 원화 상하방 모두에 영향 미칠 전망

### 상승 요인 vs. 하락 요인

상승요인	하락요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유럽 전쟁 장기화 속 격화 시점에서의 변동성 확대 가능성</li> <li>· 국내 주요 지표 부진 속 성장 동력 약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은의 연간 물가 전망 상향 속 추가 금리인상 전망에 대한 매파적 기조</li> </ul>

자료: 하나은행

# 이종통화

## 엔/원 전망

**BOJ의 기초적 완화 스탠스에도 동유럽 전쟁 격화 시점과 세계 경기 하강 우려 등에 따른 안전자산 선호 강화 속 연준의 완화적 긴축 전망에 엔화는 강세 기조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

2월 달러/엔 평균환율 : 115.2  
2월 엔/원 평균환율 : 1,040.1

3월 엔/원 예상범위 : 1,040~1,055

- (동향) 미 1월 CPI의 급등에 따른 연준의 강한 긴축 가능성에 약세 출발. 이어 우크라이나 이슈에 따른 글로벌 금융시장 변동성에 강세 전환. 중반, 러시아의 돈바스 침공 소식이 엔 강세에 영향을 미쳤으나, 미국의 계속된 PPI 급등과 연준의 매파적 시그널로 강세 제한되는 모습. 후반,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안전자산 선호에 연동하다 협상 소식 등에 약세 전환 마감. 엔/원 환율은 연준의 강한 긴축 우려와 동유럽 위기 고조에 따른 원화 약세 부각되며 상승
- (엔/원 전망) 최근 일본내 오미크론 확산세가 진정되는 양상이나 BOJ의 완화적 기조 고수 방침 등에 따른 미-일 통화정책 차별화 요인은 엔화 약세에 영향 미칠 전망이다. 하지만 최근 격화되며 장기화 양상 보이는 동유럽 전쟁 이슈가 안전자산 선호 강화를 가져오는 시점에서는 강세 흐름이 빈번히 나타날 전망 속에 점진적 강세 우위가 예상
  - 최근 일본내 오미크론 변이의 확산세가 진정되는 양상이나 BOJ는 여전히 완화적 통화 정책 기조를 고수. 이에 미-일간 통화정책 차별화 요인은 엔화의 약세를 견인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 하지만, 동유럽 전쟁 장기화 가능성 점증한 가운데 격화 및 양국 협상 결렬 시점에 안전자산 선호 강화 할 것으로 보이며, 또한 전쟁 여파에 의한 세계 경기 하강 우려가 엔화의 전반적 강세 지배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엔/원은 연준의 완화적 긴축에도 동유럽 이슈에 따른 상대적 원화 약세로 상승 예상

## 유로/원 전망

**연준의 완화적 긴축 가능성은 통화정책 불확실성 해소와 함께 달러 약세 견인하겠지만, 동유럽 전쟁 장기화에 따른 유로존의 직접적 경제 타격 우려는 경기 하방위험을 높이며 유로 약세에 영향 미칠 전망이다**

2월 유로/달러 평균환율 : 1.1343  
2월 유로/원 평균환율 : 1,359.43.3

3월 유로/원 예상범위 : 1,325~1,350

- (동향) 영국 중앙은행과 ECB의 인플레이션에 대한 매파 스탠스 속 '82년래 가장 높게 미 CPI가 발표되며 강세에서 약세 전환 양상. 우크라이나 불확실성, ECB총재의 그간의 강한 긴축에 대한 경계감도 약세 견인. 중반, 미 인플레 방향성 영향 반영하며 등락 보인 가운데, 우크라이나 교전 등 확산 가능성에 약세 지속. 이어 후반, 독일 경제지표 호조 속 인플레 상황 등이 유로 강세 견인 요인이었으나,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에 따른 불확실성 확대 속에 약세 마감
- (유로/원 전망) 3월 연준 금리 인상이 25bp의 완화적 긴축 가능성은 최근 유로존 인플레이션 상황과 함께 유로 강세 영향 요인. 그러나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할 전망에 따른 직접적 유로존 경제 타격 가능성 높아진 점이 강세 제한 속 약세 전환을 견인할 전망이다
  - ECB의 긴축 기조가 완화 조짐 보인 가운데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가능성에 따른 인플레이션 상승 등이 오히려 경제 회복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방향으로 작용하며 유로 약세 견인할 전망이다. 유로/원 환율은 동유럽 전쟁 이슈의 직접적 유로존 타격이 우려됨에 따라 유로화의 상대적 약세로 하락 예상

# 국내외 주요 경제지표 발표일정(2022년 3월)

SUN	MON	TUE	WED	THU	FRI	SAT
		<b>1 휴장(3.1절) RBA 통화정책회의</b> 2		<b>3 美 Beige Book 발표</b>	<b>4</b>	<b>5</b>
*주: 1. 상기 일정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P]-잠정치, [F]-확정치, [SA]-계절조정, [A]-예고치, ()안은 이전치		한 2월 수출/수입(15.2%/35.5%, YoY) 2월 무역수지(-\$4889M) 우 2월 Markit PMI 제조업(58.4) 일 2월 지분 은행 PMI 제조업(F)(52.9) 중 1월 Caixin 제조업 PMI(49.1) 호 3월 RBA 기준금리(0.10%)	한 1월 광공업생산(4.3% MoM, 6.2% YoY) 2월 Markit PMI 제조업(52.8) 2월 외환보유고(\$461.53b) 미 1월 건설지출(0.2%, MoM) 2월 ISM 제조업지수(57.6)/ISM 고용(54.5) 2월 ISM New Orders(57.9) 2월 ISM 구매물가지수(76.1) 유 2월 CPI(0.3% MoM, 2.3% YoY)	U.S. Federal Reserve Releases Beige Book 미 2월 Markit PMI 종합(56.0)/서비스(56.7) 4Q 비농업부문 노동생산성(6.6%) 4Q 단위노동비용지수(0.3%) 유 2월 Markit PMI 종합(55.8)/서비스(55.8) 1월 PPI(2.9% MoM, 26.2% YoY) 일 2월 지분은행 PMI 서비스(42.7)/종합(44.6) 2월 소비자경기대지수(36.7) 1월 유통구인배율(1.16) 중 1월 Caixin 종합 PMI(50.1)/서비스 PMI(51.4)	한 2월 CPI(0.6% MoM, 3.6% YoY) 미 2월 ISM 서비스지수(59.9) 1월 제조업수주(-0.4%) / 내구재주문 2월 시간당 평균 임금(0.7% MoM, 5.7% YoY) 2월 경제활동 참가율(62.2%) 2월 제조업 임금변동(13K) 2월 실업률(7.1%) 유 1월 소매판매(-3.0% MoM, 2.0% YoY) 일 1월 실업률(2.7%)	
<b>6</b>	<b>7</b>	<b>8</b>	<b>9 휴장(대통령 선거일)</b>	<b>10 ECB 통화정책회의</b>	<b>11</b>	<b>12</b>
유 3월 섀넥스 투자자대지수(16.6) 독 1월 공장수주(2.8% MoM, 5.5% YoY)	미 1월 소비자신용지수(\$18.898b) 2월 NRB 소기업 낙관지수(97.1) 1월 무역수지(-\$80.7b) 우 4Q 고용 QoQ(0.5%)/ 고용 YoY(2.1%) 일 1월 노동자 연금수입(-0.2%) 1월 실질 임금총액 전년비(-2.2%) 1월 실질 임금총액(-2.2%, YoY) 독 1월 산업생산(-0.3% MoM, -4.1% YoY)	미 1월 소매자신용지수(18.898b) 2월 NRB 소기업 낙관지수(97.1) 1월 무역수지(-\$80.7b) 우 4Q 고용 QoQ(0.5%)/ 고용 YoY(2.1%) 일 1월 노동자 연금수입(-0.2%) 1월 실질 임금총액 전년비(-2.2%) 1월 실질 임금총액(-2.2%, YoY) 독 1월 산업생산(-0.3% MoM, -4.1% YoY)	미 1월 도매무역 판매(0.2%) 일 2월 통화량 M2(3.6%, YoY), M3(3.3%, YoY) 2월 공작기계 수출(61.3%, YoY) 중 2월 신규 위안화 대출 CNY(3980.0b) 2월 통화규모 M0(18.5%, YoY) 2월 통화규모 M1(-1.9%, YoY) 2월 통화규모 M2(9.8%, YoY) 2월 PPI(9.1% YoY) / CPI(0.9% YoY)	미 2월 CPI(0.6% MoM, 7.5% YoY) 2월 실질 평균 시간당 임금(-1.7%, YoY) 2월 주간 평균 실질 소득(-3.1%, YoY) 우 3월 ECB 단기수신금리(-0.5%) 3월 ECB 마진 대출 파실리티(0.25%) 일 2월 PPI(0.6% MoM, 8.6% YoY)  ECB President Christine Lagarde Holds Press Conference	한 1월 BoP 경상수지, 상품수지 미 4Q 가계 순자산변동(\$2362b) 2월 월간 재정수지(\$118.7b) 일 1월 가계 소비지출(-0.2%, YoY) 독 2월 도매물가지수(2.3% MoM, 16.2% YoY)	
<b>13</b>	<b>14</b>	<b>15</b>	<b>16 美 FOMC(~17)</b>	<b>17 BOE 통화정책회의</b>	<b>18 BOJ 통화정책회의</b>	<b>19</b>
유 1월 산업생산(1.2% MoM, 1.6% YoY)	한 2월 수출물가지수(-1.4% MoM, 22.3% YoY) 2월 수입물가지수(4.1% MoM, 30.1% YoY) 미 2월 PPI(1.0% MoM, 9.7% YoY) 3월 미시간대 소비자신뢰, 경기현황 3월 미시간대 소비자기대, 1년 인플레이션 유 3월 ZEW 서베이 예상(48.6) 독 3월 ZEW 서베이 예상(54.3)	한 2월 수출물가지수(-1.4% MoM, 22.3% YoY) 2월 수입물가지수(4.1% MoM, 30.1% YoY) 미 2월 PPI(1.0% MoM, 9.7% YoY) 3월 미시간대 소비자신뢰, 경기현황 3월 미시간대 소비자기대, 1년 인플레이션 유 3월 ZEW 서베이 예상(48.6) 독 3월 ZEW 서베이 예상(54.3)	한 2월 실업률(3.6%) 미 2월 수출물가지수(2.9% MoM, 15.1% YoY) 2월 수입물가지수(2.0% MoM, 10.8% YoY) 2월 소매판매(3.3% MoM) 1월 기업채고(2.1%) 3월 NAHB 주택시장지수(82) 일 2월 수출(9.6% YoY) / 수입(39.6% YoY) 1월 설비가동률(-0.4% MoM) / 광공업생산 2월 전국 백화점 판매(15.6% YoY)	한 1월 통화규모 L(0.5%, MoM) 1월 통화규모 M2(0.7%, MoM) 미 FOMC 금리 결정(0.00% ~ 0.50%) 3월 미연준 준비금잔고 금리(0.15%) 2월 주택착공건수(-4.1% MoM) 2월 건축허가(0.7% MoM) / 설비가동률(77.6%) 3월 필리델피아 연준 경기 전망(16) 2월 광공업생산(1.4% MoM) 영 3월 영란은행 기준금리(0.5%)	미 2월 섀넥스(-0.3%) 2월 기준주택판매(6.7% MoM) 일 1월 3차 산업지수(0.4% MoM) 1월 핵심가계수주(5.1% MoM, 3.6% YoY) 2월 전국 CPI(0.5% YoY) 3월 일본은행 정책금리잔고(-0.1%) 3월 일본은행 10년 수익률 목표(0.0%)	
<b>20</b>	<b>21</b>	<b>22</b>	<b>23</b>	<b>24</b>	<b>25</b>	<b>26</b>
한 3월 수출 20일(13.1% YoY) 3월 수입 20일(12.9% YoY) 미 2월 시카고 연방 국가활동 지수 유 1월 건설생산(-4.0% MoM, -3.9% YoY) 중 1년 위안화 대출금리(3.70%) 5년 위안화 대출금리(4.60%) 독 2월 PPI(2.2% MoM, 25.0% YoY)	미 3월 리치몬드 연방 제조업지수  Fed Chair Powell speaks at NABE	미 3월 리치몬드 연방 제조업지수  Fed Chair Powell speaks at NABE	한 2월 PPI(8.7% YoY) 미 2월 신규주택판매	미 3월 Markit PMI 제조업/서비스/종합  ECB Publishes Economic Bulletin	한 2월 소매판매 미 3월 미시간대 소비자신뢰, 경기현황 3월 미시간대 소비자기대, 1년 인플레이션 3월 캔자스시티 제조업활동 일 3월 도쿄 CPI(1.0% YoY) 2월 PPI 서비스(1.2% YoY) 독 3월 IFO 기업환경지수(98.9)	
<b>27</b>	<b>28</b>	<b>29</b>	<b>30</b>	<b>31</b>		
미 3월 달러스 연준 제조업 활동	한 3월 소비자심리지수(103.1) 미 1월 HFA 주택가격지수 3월 컨퍼런스보드 소비자기대지수 독 4월 GfK 소비자 기대지수(-8.1)	한 3월 소비자심리지수(103.1) 미 1월 HFA 주택가격지수 3월 컨퍼런스보드 소비자기대지수 독 4월 GfK 소비자 기대지수(-8.1)	미 4Q GDP 물가지수 / GDP 연간화 QoQ 4Q 개인소비	한 4월 기업경기실사 제조회/비제조회 미 2월 캔자스시티 제조업활동 2월 개인소득, 개인소비지수, 실질 개인소비 2월 PCE 디플레이터		

본 자료는 현 경제상황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된 기초 자료입니다. 따라서 투자 권유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 본 자료는 신뢰할 수 있는 정보에 근거해서 작성된 것이나 정확성 등을 보증한 것은 아니며, 자료에 나타난 의견이나 전망치는 향후 예고없이 당행의 판단으로 수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자료는 당행의 저작물이며 사전의 승인 없이 본 자료의 전체 혹은 일부를 인용하거나 복제하여 사용하는 것을 금합니다.

본 자료는 하나은행 외환포털(<http://fx.kebhana.com>) → 환율 → 외환시장동향 → 월별금리환율예측자료)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